

약년자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환자의 임상적 특성

전남의대 알레르기내과학교실 한의령, 최인선*, 정세웅, 김상호

아스피린 과민성 천식은 평균 30세에 비염으로 시작하여 약 2년 후에 천식 그리고 또 4년 후에 아스피린 과민성이 생기며, 성인 천식환자에서 유발시험으로 9-20%가 아스피린 과민성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는 약년자 천식환자 중의 유병률과 그 임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18 ~ 30세 남자로서 병사용 천식진단 목적으로 아스피린 유발검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천식 검사를 시행하였던 환자들의 진료부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총 54명의 환자 중 아스피린 흡입유발시험에 양성반응을 보인 경우는 6명(11.1%)이었고, 흡입유발 음성 환자에 아스피린 250mg과 500mg 경구 유발시험을 시행하여 양성을 보인 경우가 5명이어서 총 11명(20.4%)이 아스피린 과민 천식환자이었다. 메타폴린 PC₂₀는 흡입유발 양성 0.12mg/ml, 경구유발 양성 0.89mg/ml, 유발 음성 1.36mg/ml로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FEV₁은 71.6%, 80.6%, 85.1%로서 음성에 비해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흡입유발 양성 환자는 경구유발 양성 환자에 비해 집먼지진드기 특이 혈청 IgE치가 유의하게 높았고(7.33 ± 1.63 대 1.50 ± 0.50, $p < 0.05$), 음성환자에 비해 집먼지진드기 흡입 유발시험 조기반응 양성이 유의하게 높았다(100% 대 46.4%, $p < 0.05$).

이상의 결과로 약년자 천식환자 중에서도 아스피린 과민성의 유병률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름 없이 높으며, 아스피린 과민성은 천식 중증도,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감작 및 기도반응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치커리를 먹은 후에 유발된 아나필락틱 쇼크 1예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송현주*, 장혜정, 강민정, 박창한, 조영주

서론 : 치커리는 쑥, 돼지풀과 같은 국화과 식물로 최근 식용으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레투스, 앤디브, 아티초크 등 외래식용식물과 교차항원성을 지니고 있다. 치커리에 의한 IgE-매개반응은 매우 드문 경우로 본 저자들은 생치커리잎을 먹은 후 전신성 아나필락틱 쇼크를 보인 1예를 경험하고 국내에서 첫 번째로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6세 여자가 내원 당일 점심에 치커리쌈을 먹고 30분 후 전신의 두드러기, 호흡곤란과 실신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어렸을 적에 천식을 진단받았으나 현재는 증상이 없어 치료받지 않고 있었으며, 약물알레르기 및 다른 질환은 없었다. 1년 전에 돼지고기 섭취 후 전신 두드러기와 혈관부종으로 치료받은 적이 두 차례 있었다. 내원 당시 혈압은 90/60 mmHg, 눈과 입 주위의 부종, 전신 두드러기와 팔뚝하부에 천명음이 들렸다.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을 투여한 후에 증상은 호전되었다. 피부단자시험상 잡초, 산쑥(mugwort), 버드나무(sallow), 생치커리에 양성반응을 보였다. 치커리에 의한 아나필락틱 쇼크로 진단하고 회피요법으로 현재까지 증상없이 지내고 있다.

결론 : 본 저자들은 피부단자시험으로 치커리에 의한 IgE-매개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였고, 앞으로 치커리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음식의 종류에 추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